

# 전북 금융도시 재추진...기대와 회의 교차

## “새만금 국제공항 더 미룰 수 없다” 조기건설추진연 신속 착공·확대 촉구

지선 앞두고 재등장 ‘실현 의문’  
李대통령 공약 힘입어 재시동  
국제금융센터 등 핵심 ‘정제’

전북자치도가 한동안 사실상 유보했던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공약을 다시 꺼내 들면서 지역사회에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는 실현 의지를 거듭 밝히며 관련 구체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에 나섰으며, 이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금융도시 조성 사업은 출발 이후 수년간 실질적 진전 없이 정체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구상이 본격화됐지만, 이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치권의 반복된 ‘선거용 공약’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자는 논의는 2019년 이후 공식 채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2023년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20대와 21대 대선 공약집에서도 ‘제3금융중심지’라는 표현은 아예 제외됐다.

이와 함께 금융도시 조성의 또 다른 축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사업 역시 답보 상태다.

당초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사옥 형태로 활용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와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사업



민선8기 도정 3주년 기자회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주체와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부재도 난관으로 꼽힌다.

핵심은 전북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국민연금 수탁기관의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나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으며, 외부 투자 유인책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북에는 국내의 금융기관 16곳이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최소 인력만 상주하며 실질적 기능은 서울 본사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금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도시 조성은 단순한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과 금융산업 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실현 가능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실행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부 설득의

동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 사회 일각에서는 “민선 8기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시점에서 갑

작스럽게 추진되는 정책이 또다시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은지 기자

## 전북 정치권, 국회 특정 상임위에 편중 배치 ‘재조정 여론’ 비등

전북 국회의원 법사위에 4명  
산업·국토·복지위 등에 전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제22대 국회 상반기 2년차에 전북 국회의원 11명(비례대표포함) 중 4명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등 특정 상임위에 치중되면서, 상임위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현황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11명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4명, 행정안전위원회 1명, 기획재정위원회 1명, 농림축산식품위원회 2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명, 환경노동위원회 1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명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춘석위원장과 함께 이성윤·박희승 의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국회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안전위원회에는 한병도위원이 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신영대의원,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는 이원택·윤준병 의원이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동영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는 김윤덕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한병도 위원장과 박희승·조배숙 의원이 배정되었다.

하지만 전북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는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물론 제22대 국회 상반기 2년차 상임위원회 보궐 선출 등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앞서 12.3 개업과 탄핵 정국에서 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사보임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특정 상임위에 4명이 배치된 점과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외교통일 위원회로 사보임될 것으로

예상,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집권에 따른 정부의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국회의 상임위로 조정되면서 상임위원들에 대한 사보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요 상임위에 최소 1명 이상의 의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및 특수 상황 등으로 상임위의 중복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 김관영 도지사 “오직 전북만 바라보겠다”

## 민선8기 주요 성과 도정 운용 방향 발표 “도약 넘어 완성하겠다”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오직 민생만을, 오직 전북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8기 도정이 4년차에 접어들며 임기 1년을 남겨둔 소회를 이같이 밝히고, 3년 간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및 후속조치 등 성과를 언급하며, “혁신적인 정책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전북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도민과 함께 그리는 행복하고 설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북자치도가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에 온기와 열망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변화의 3년을 강조하며 철박함과 독심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임했다”며 도전을 역설했다.

김지사는 향후 도정 방향과 관련해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추진으로 전북 중추도시 육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전주권 광역교통망 청사진 제시 등 3로(路) 현안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 달성 △주력산업 전환과 신산업 생태계 형성 △강점산업 고도화 완성 △새만금 SOC 기반 조성 △북지·안전사회 조성 인재 양성 등 5성(成) 전략을 중심으로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지난 3년, 전북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켜 세우라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뛰었다”며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도전정성의 믿음을

으로 전북을 바꾸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도약을 넘어 완성의 시간이다”며 “도민과 함께 써온 자랑스러운 도전의 역사, 위대한 성공의 역사로 바뀌어갔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 하안양옥집 개관 1주년 ‘홈커밍데이’

‘문화올림픽’ 마중물  
도지사 공간서 도민공간으로

전북자치도는 1일 하안양옥집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 한옥마을 안쪽, 옛 관사 자리에서 열렸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과 도민 등 50여 명이 함께하며 문화와 시간이 녹아든 공간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하안양옥집은 1995년 민선 1기인 유종근 지사부터 2022년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 역대 도지사들의 거처였다. 2022

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는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2024년 5월 21일 문화공간의 문을 열어 현실이 됐다. 이제 하안양옥집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전북이 추진하는 ‘문화올림픽’의 마중물이자, 일상의 예술이 흐르는 실험장이 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하안양옥집은 도민과 맺은 약속이자, 문화가 일상이 되고 예술이 공유되는 상징”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참여가 전북의 문화올림픽을 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자치도, 사회적기업 정책 성과 ‘전국 최고’

### 자체 예산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경제위기 속에서도 성장한 전북 사회적경제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1일,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사

회적기업 활성화에 앞장선 전국 자치단체 중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자리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판로지원 등의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역 일자리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지원체계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 △사회적가치지표(SVI) 참여실적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평가하며,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도 부문 최우수, 경북도가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

됐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보조금 중단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 예산을 적극 편성·확대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에 주력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성장, 판로, 협업을 아우르는 통합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았으며, 올해 완공한 ‘전북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제품 유통과 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체계화, 사회적가치 측정지표(SVI) 도입,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에서 두루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전국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은 정부 재정 축소에도 불구하고 도와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2차추경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입니다. 이번 주 6월국회 회기(4일)안에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다”며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안에 지급해서 국민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

신한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란다”며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만전

### 422개 시설 집중 점검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시설, 리조트, 대규모 점포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22개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집중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 전기 사용량 증가, 높은 습도로 인한 전기화재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시 점검 △현장 지도·점검 △현직적응훈련 △도민 대상 홍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체적인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불시 화재안전조사는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대상 약 10%를 선정해 실시하며, 소방시설의 차단·폐쇄

여부, 피난경로 확보 상태, 수신기 기록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침수 우려 시설은 조기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과 수리 조치를 병행한다.

현장 점검은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영화관, 대규모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해 냉방기기, 모기향 등 여름철 취약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살핀다.

또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관리자와 실시간 소통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서울장학숙 입사생, 부안서 농촌일손돕기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은 1일부터 4일까지 부안군 일원에서 입사생과 직원, 총동기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2025년도 전북지역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1일 오후 부안군 하서면 소재 청호수마을에서 진행된 지역봉사활동 발대식에는 김정기·김슬기 도의원, 고영호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강성길 청호수마을 위원장, 이현웅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문향금 전주장학숙 관장, 김호식 전북자치도교육추진단 단장 등이 참석해 지역봉사활동에 나선 서울장학숙의 전북 미래세대들을 격려했다.

서울장학숙의 전북지역봉사활동은 고향 전북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장학숙 입사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 고향의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

로그래를 통해 고향 전북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기획됐다.

부안군에서 진행되는 주요 지역활동은 지역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 청소년과의 대화(우덕초) 및 고교 멘토링(서립고), 지역 어르신 초청 한마음 나눔 행사, 서울장학숙 출신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율화장 이건설(성균관대 행정학과 3) 군은 “전북의 미래세대로서 작은 힘이나마 고향에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입사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장학숙 김관수 관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입사생이 참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여름 실내적정온도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에어컨 작동중 일때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 수소산업, ‘아이디어를 넘어 실행으로’

## RE100 얼라이언스 정기회의 사업 구체화 과제기획위 구성

전북자치도는 1일, 완주 수소융합허브 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수소분과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 수소산업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방향, 정부 공모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신규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CCU 구축 및 친환경 항공·선박유 생산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자원 순환도시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청정 메탄올 생산사업 ▲100톤/일급 플라스마 기반 폐기물 가스화 실증 등이 논의

됐다.

참석 위원들은 이들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9월 까지 과제별 회의를 3~4회 진행하며,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9월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수소융합허브사인증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고압가스 내압시험장비, 수소기밀 검사장비 등 주요 설비를 직접 견학하며 수소안전·품질인증 인프라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수소융합허브사인증센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인증 전문기관으로, 수소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지속



전북자치도는 1일, 완주 수소융합허브사인증센터에서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가능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산업계, 연구기관, 행정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도에서도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북형 수소 신산업 발판을 체계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예산 반영 및 실증 사업화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글로벌 소재기업 도레이, “성장은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

## 이영관 前 도레이첨단 회장 ‘전북 백년포럼’ 강사 나서

1926년 창립돼 세계적 소재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레이그룹의 혁신 DNA와 현장주의 리더십을 전북 발전에 접목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일 오전 8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도레이그룹의 성장과 경영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3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영관 이사장(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前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1926년 창립된 도레이그룹이 세계적인 소재기업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도레이는 ‘소재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기업 이념 아래 극한 추구와 50년 간의 집념,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자율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

왔다”며 도레이의 혁신 DNA를 구성하는 요소로 ‘극한’, ‘집념’, ‘혁신과 도전’, ‘자율’을 꼽으며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도레이그룹이 현재 연 매출 3조, 임직원 3천900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소개한 그는 성공의 비결로 한일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전략 실행,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 투명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꼽았다. 특히 “한국 진출 초기부터 일본 본사와의 유기적 협력 및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점이 도레이첨단소재의 고속 성장에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군산에 설립한 PPS 공장을 설명했다. 이 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PPS 수지·컴파운드 생산시설이자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 사업장으로, 전북에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21년간 생산 현장 근무와 25년간 CEO 재



전북연구원은 1일 오전 8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도레이그룹의 성장과 경영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3강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직이라는 이력을 가진 이영관 이사장은 현장주의 경영철학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리더십 경험도 공유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리더십 전

락을 지역의 현실과 접목해, 전북이 첨단소재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김항수 35대 전북지방조달청장 업무 돌입

### 조달행정 주요 보직 거쳐 현장 중심 규제 개선 강조

김항수 제35대 전북지방조달청장이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등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한 중소기업·혁신기업 성장 지원, 우리 지역 공공구매 파트너십 데이 개최를 통한 판로 지원, 민생 현장 소통을 통한 규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에게 일할 맛 나는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김항수 청장

적극적인 소통과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신임 김항수(1972생)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이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업을 마쳤다.

김 청장은 국무조정실, 서비스계약과, 기술서비스총괄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조달운영과,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 통합추진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조달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 김현진 신임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 취임

### 33년 중소벤처 경험 전문가 전북 미래경쟁력 확보 총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이 7월 1일자로 김현진 신임 본부장 취임을 알렸다.

김현진 본부장은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업을 마쳤다.

김 본부장은 1992년에 중진공에 입사해 약 33년간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김 본부장은 본사의 기획조정실, 대총관리실, 기업금융처, 청년창업사관학교, 수출마케팅사업처 등에서 정책자금 기획 및 집행관리, 인력양성·창업지원, 수출마케팅·글로벌발파 지원 등 기업지원의 핵심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그는 수출마케팅사업처장으로 재직시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자, 수출마케팅사업처를 확대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여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후 인천서부·경기남부지부장,



김현진 본부장

전남동부지부장 등 수도권 및 호남권 지역본부의 책임자로 활동하며 지역산업 특성

에 맞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진 본부장은 “글로벌 이슈인 미·중 무역경쟁, 러시아·중동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 전북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전주시 탄소국가산단,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에 대해 분절된 지원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와 협업의 연결망을 촘촘하게 엮어 전북 주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은지 기자

## 북전주농협, 전주 범농협 임직원 릴레이 헌혈 ‘시동’

### 혈액 수급난에 농협 ‘팔 걷어’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와 함께 1일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혈액 수급난 해소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 범농협 임직원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 헌혈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고자 북전주농협, 농협전주시지부 임직원 30여 명 발길이 이어졌다.

하양진 지부장은 “헌혈 캠페인은 지난 4월 전주김제완주축협을 시작으로

전주시 농축협 임직원이 참여하며 전주시 범농협 임직원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북전주농협을 시작으로 전주농협, 전주원예농협과 함께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이어 나눔 문화 확산 지역사회 대표기관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우광 조합장은 “자신의 건강도 확신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헌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북전주농협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은행 ‘공유우산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 전주·익산·군산 55개 지점 비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일부터 순차적으로 따뜻한 공유우산 무료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

따뜻한 공유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는 어려운 금융 환경에도 언제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전북은행의 마음을 담아 우산을 통해 고객에게 따뜻한 동행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우천 시 우산을 소지 하지 않은 내점 고객들의 불편

해소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일회용 우산 사용을 줄여 ESG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유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는 2일부터 전주, 익산, 군산 지역 전북은행 주요 지점 총 55곳에 공유 우산 대여함을 설치해 우천 시 고객이 필요 할 때 무료 대여 및 사용 종료 후 가까운 전북은행 지점에 자율 반납 형식으로 운영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ESG 가치 실현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농촌진흥청, 장마철 딸기 육묘장 침수 확산 ‘대응 총력’

## 집중호우 시 온실·배수로 정비 생존율을 높이는 방제법 제시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딸기 육묘장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 위한 예방 관리와 사후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딸기 모종을 기르는 육묘기는 장마 시기와 겹쳐 온실 내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때 물에 잠긴 모종에서는 뿌리가 갈

색으로 변하거나 새잎이 정상으로 자라지 않는 등 생리장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딸기 모종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해 육묘장 주변에 충분한 깊이로 물길을 내 물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한다. 강풍과 폭우에 대비해 온실 고정 상태를 점검하고 오래된 비닐은 미리 교체한다. 탄저병, 시들음병, 선충 등에 대비해 예방적 방제도 철저히 한다.

시설 내부가 물에 잠겼을 때는 재빨리

온실 안 물을 완전히 빼준다.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해 전기를 차단한 뒤, 양액을 공급하는 양액기와 난방기 등 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침수 피해 증상이 심한 모종은 바로 제거한다. 피해가 적은 모종은 물뿌리개(스프링클러)와 고압분무기로 잎을 깨끗이 씻어낸 뒤, 탄저병, 시들음병, 역병, 작은뿌리파리 등 병해충 방제 약제를 번갈아 뿌려 준다.

24시간가량 침수됐더라도 방제 계획에 따라 2~3일 간격으로 방제하면, 생

존율 95% 이상의 정상 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

작물 없이 시달린 물에 잠겼을 때도 재배 전 토양과 배지, 재배틀(고설베드) 등을 염소계 소독제로 깨끗이 소독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육현충 과장은 “딸기 육묘기는 장마철과 시기가 겹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 LX, 창사 48주년…“‘중꺾마’로 경영 정상화 도전”

## 1일 48주년 창사 기념식 개최 경영평가 한 단계 상승 성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는 1일 전주 본사에서 ‘제48주년 창사 기념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재도약 의지를 다졌다.

이번 기념식은 어명소 사장, 위경열 노동조합 위원장,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난 48년간의 LX 발전취를 되돌아보며,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어졌다.

특히 LX는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도 노사가 ‘중꺾마’ 정신으로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2024년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

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비용 절감과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로 LX는 4년 이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LX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어명소 사장의 기념사와 ‘LX 재도약’을 주제로 한 기념사 영상을 통해 LX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 촬영 이후에는 임원, 실처장들이 본사 야마당으로 이동해 푸른마당 개장을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어명소 사장은 기념사에서 “창사 48주년을 맞아 오늘의 LX를 만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



LX공사가 1일 전주 본사에서 제48주년 창사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LX>

다”며 “경영 위기로 인해 단단해지는 시

뜻이 되어 위기에 더욱 강한 LX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전북교육청 이관

1일부터 본청 운영

학교 담당자 업무 경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성 관련 사건 처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1일 직원조회에서 “지금까지 일궈온 소중한 성과들을 굳건히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유 권한대행 “학력신장·책임교육 일관성 있게 추진”

1일 직원조회서  
학교 현장 지원·지속 성장 강조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1일 직원조회에서 “지금까지 일궈온 소중한 성과들을 굳건히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내년 새로운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이끌게 됐다.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 지원과 전북교육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직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권한대행은 “지난 3년간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

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토의해서 만들고 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것이다. 더욱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정책기조와 전북교육 대전환의 방향은 도민들과 전북교육가족의 공감을 받고 있다”며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한 10대 핵심과제는 확실히 실행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에 예비 교육감 후보 ‘김윤태 교수’ 임명

경영학부 이호정 교수  
대학원장 임명

우석대학교가 7월 1일자로 예비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김윤태(심리운동학과·유아특수교육과) 교수를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했다.

또한 우석대학교는 이호정(경영학부) 교수를 대학원장에 임명했다.

김윤태 신임 대외협력부총장은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는 2007년 부임해 사범대학장



김윤태 교수

과 평생교육원장, 인지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2022년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심리부검 분과위 자문위원, 이태원참사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부장,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 가슴기살균



이호정 교수

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지원 방안 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김윤태 대외협력부총장은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인화학교 사건과 원주 귀래 사람의 집 사건, 저주 자립원 사건,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서울 인

강원 피해 사건, 남원 평화의 집 사건 등 여러 강제노동 및 감금사건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임 대학원장에 임명된 이호정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윤태 대외협력부총장은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석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겠다”라며 “대학의 교육 혁신과 연구 역량 제고, 대외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진행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과 1일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공연장에서 ‘2025학

년도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는 다문화학생의 언어와 문화 적응을 돕고, 현장 교원의 전문성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과 다문화 업무 담당 교원 400여 명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김준겸 교수와 독일 출신 인문학자 안톤 솔츠가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준겸 교수는 ‘다문화교육과 학교 교육 현장의 역할’을 주제로 이주배경학생의 정체성과 문화 적응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한 해외의 다문화교육 사례를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 설명하며, 포용적 교

육 실천을 위한 교원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이해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제2회 JNU 총장배 디베이트 대회’ 최우수상

생명과학과 4학년 김서연 학생

국립군산대학교는 생명과학과 4학년 김서연 학생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25 제2회 총장배 JNU 디베이트 대회’에서 최우수상(1등,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제주대학교 교육혁신처 주관으로, 전북·제주 지역 국립대학 학부생들이 참가한 연합 토론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토론캠프를 통해 전문적인 발표 및 논증 스킬을 훈련한 뒤, 실제

무대에서 총 26명 9개팀으로 구성돼 열띤 토론 경기를 펼쳤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립군산대 김서연 학생은 ‘카르카손팀’(전북대 이성경, 제주대 홍사진)으로 참가해 △주 4일제 도입, △원자력 발전의 득실,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룬 경기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설득력 있는 발표로 참가팀 중 가장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이동로봇 시각 인식 연구, 세계 연구무대에

컴퓨터비전 최고 학회 논문 채택

전북대학교 이상준 교수 연구팀(공대 전자공학부)의 논문이 컴퓨터비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ICCV 2025(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 채택됐다.

ICCV는 IEEE와 CVF(Computer Vision Foundation)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비전 학술대회로,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이번에 채택된 논문 제목은 ‘MDP-Omni: Parameter-free Multimodal Depth Prior-based Sampling for Omnidirectional Stereo Matching’으로, 이동로봇의 전방위 3차원 주변환경 인식을 위한 첨단 딥러닝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다중 어안카메라 영상을 활용해 오매칭을 줄이고, 깊이 추정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추가 파라미터 없이 예측거리의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깊이 기반 샘플링 기법과, 시야각 정보



이상준 교수



조형기 교수



권우경 박사



손은진 연구원

를 이용한 다중 시점 영상 융합 모듈을 새롭게 개발했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의 성능을 입증했으며, 기존 방식 대비 정밀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손은진 연구원은 “석사 과정 중 진행한 연구가 세계 최고

권위 학술대회에 채택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 연구는 이동로봇의 카메라 기반 환경 인식 기술의 핵심 연구로서, 관련 분야 기술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인사] 전주교대

◆ 2025. 6. 23.자 직원 인사발령(전보, 보직발령만 기재)

△남기동 시설주사 △김정호 공업주사 △김민선 사서주사 △윤철현 전산주사 △김정근 전산주사 △나사내 사서주사보

◆ 2025. 7. 1.자 직원 인사발령(파견, 전임)

△구명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전주교육대학교 파견 △임명숙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파견 △권나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전주교육대학교 파견 △최가현 지방교육행정서기 전주교육대학교 파견 △한경미 행정주사보 전주교육대학교 전임

## 무더운 여름

## 폭염으로부터 건강 지키기

**폭염주의보 :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

**폭염경보 :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될때 발효**

TV,인터넷,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술이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많이 마십니다.

가장 더운 오후2시~5시에는  
야외활동과 작업을 자제합니다.

냉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적정 실내온도 26~28℃)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다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고,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 고창군,삼성전자착공등핵심사업속도

## 심덕섭 군수 취임 3주년 터미널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공개

심덕섭 고창군수는 1일 오전 취임 3주년 ‘직원소통의날’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어 군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고창군에서는 지난 3년간 도시의 미래를 바꿀 전략사업들을 쉼 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터미널 도시재생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저,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를 매입해 자동차와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낡고 오래된 터미널을 대신해 새롭게 들어서는 교통·문화 복합시설도 공개됐다. 심 군수는 직접 조감도를 설



명하며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숙원인 ‘서해안철도 연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창군 공약 1번에 반영됐다. ‘노을대교’ 역시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2030년 개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 해양레저관광의 새 역사도 시작된다. 용평리조트는 내년부터 분양호 보관을 운영하며 고창해양개발 붐을 이

끌고, 주변에는 ‘국제가누슬라럼 경기장’도 지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고 사시시설 즐기는 최고의 복합레저휴양도시를 만들어 간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책을 새롭게 벌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 1일부터 특례보증 시행 소진 시까지 총 43억 지원

고창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하반기 총 43

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2종류의 융자와 이차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Ⅰ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 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융자Ⅱ (희망더드림 특례보증)’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고창군은 올해 상반기에 약 85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

는 자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정성주 김제시장, 4년차 첫날 환경정비로 시작

### 민선8기 3주년 배식봉사등 민생현장 시민소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과 더욱 가까워서 시장을 이끌겠다는 정성주 시장의 의지에 따라 1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여는 대신 민생현장 시민소통 행보에 나섰다.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4년차 첫날을 김제 시내 환경정비로 바쁘게 시작했다.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원초화에 참석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전했으며 김제시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장애인 복지타운에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며 200여명의 이용객 및 시민을 만났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김제시 복지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식업 소상공인들을 만나 배달어플 이용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공공배달업 도입 논의 등 지역 민생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귀농 농가에 방문해 소규모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

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을 환경·복지·경제·농업 4가지 분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뜻깊었고 계속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에 다가 서겠다”며 “3년간 이뤄낸 모든 성과는 시장을 믿어준 시민들과 직원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김제시의 미래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청년UP센터,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

### 지역특성수요 반영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지원

부안군은 부안청년UP센터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주최하고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수요를 반영

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에서 부안, 전주, 군산 3개 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부안군은 올해 ‘청년 날다 프로젝트Ⅲ’을 제안해 선정됐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GTQ반과 전산회계 자격증반을 각각 개설해 총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청년 대상 실용 교육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기반 강화에 힘을 기울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해마다 지역 청년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지원과 정책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저출산 대응 ‘고창아이랑’ 문 열어

유아용품 합리적 가격 제공

전북 고창군이 1일 오후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출산·유아용품 전문판매점 ‘고창아이랑’을 열었다.

‘고창아이랑’은 고창군과 고창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해 자활근로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형 매장이다.

베네통기러 등 신생아 내의, 유아복, 출산용품 등 다양한 육아 관련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고창아이랑’은 출산을 감소와 육아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고창읍

내 출산용품 전문점이 폐점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육아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고창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자활사업 모델로 ‘고창아이랑’을 구상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아이랑은 단순한 판매점을 넘어,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102번 시내버스 탑승 릴레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7일부터 새만금 33센터까지 운행하는 102번 시내버스 탑승 릴레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탑승 릴레이는 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과를 시작으로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 등 김제시청 전 직원이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102번 시내버스 탑승 릴레이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를 도모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활용한 ‘김제시 새만금 관할구역 제대로 알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탑승 릴레이를 통해 김제시를 찾는 여행민과 관광객 모두가 고창의 정서적 가치를 느끼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평선과 수평선이 아름다운 새만금 도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니어클럽, ‘짜배기 카페’ 개업

어르신 일자리 창출·소통 확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30일, 김제시니어클럽(관장 천경희)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통 공간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짜배기 카페’ 개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짜배기카페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손맛과 정성을 담아 조리·판매·서비스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전통 간식을 통해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는 지역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짜배기 카페는 단순한 어르신일자리 사업 운영이 아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지역 복지 플랫폼”이며, “앞으로도 노년까지 행복한 100세 도시 김제를 위해 정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적극 홍보

부안군은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금지’홍보 활동에 본격 나섰다. 부안군은 ‘바닷가도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어항 및 읍면 사무소에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며 지역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다.

현수막은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시인성과 메시지 전달력을 고려

한 디자인을 적용해 관내 주요 어항에 설치했고 리플릿은 총 2,000장을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 및 부안수협에 배부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쓰레기 관련 법령 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아울러, 부안군은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 유입에 따른 해양쓰레기 투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폭염 대비 농어촌버스 정류장 쿨링포그 설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여름철 폭염 대응의 일환으로 부안을 주요 농어촌버스 정류장에 쿨링포그(Cooling Fog)를 설치하고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쿨링포그는 정류장 내 천장에 미세한 물 안개를 분사해 체감온도를 약 3~5℃ 낮춰주는 폭염 저감 시스템으로 기온이 30℃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자동 작동한다.

이에 따라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주민들에게 더위를 식혀주는 실효성 높은 폭염 대응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용권 안전총괄과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학생,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폭염 대응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부터 그늘막 점검, 살수차 운영 확대, 무더위쉼터 관리 강화 등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쿨링포그는 오는 9월 하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자 255명 비용 전액 지원

부안군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어업에 주로 종사해 남성 보다 질병 발생율이 높고 살림과 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높은 어촌유지 기여도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특화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255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여성어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관내 부안성도병원을 검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검진을 실시 하고 있는데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4개 영역 11개 항목으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돼 검진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특히, 군은 위도 등 섬 지역에 거주해 검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검진 기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해수부와 협의, 전국 최초로 이동 검진버스를 8월 중 위도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 국가검진에는 없는 특수건강검진으로 여성어업인의 직업질환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수강생 전원 자격증 취득

김제시(시장 정성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일 교육생 12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 훈련 및 행동 교정, 펫푸드, 반려동물 정례학 등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고, 총 200시간에 걸쳐 주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교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실무 능력 부족으로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신설 진행했다.

현장실무 능력을 위해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전주 미래전주반려동물 장례식장인 ‘아리움’에서 봉안당을 견학하고 장례절차 연습과 유골을 사용한 투세페 작업과정을 체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료생 12명 전원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자격증(민간자격)을 취득해 반려동물 전문가로서의 취·창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김제여성새일센터팀장은 “이번 반려동물 전문가 직업교육훈련 200시간의 긴 교육과정 동안 교육생들의 열정과 수업 태도가 매우 진심이었으며 모두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자격증 취득과 감사로서의 두각을 보인 수료생도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가로서의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남원 민선8기 3년, 대도약 기반 다져

## 민선 8기 3주년 행사·간담회 공약80%달성...3년 성과 공유

남원시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어온 3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1일 시청 강당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직원, 표창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7월 시청소통혁신의 날' 행사로 병행 개최, 공무원 헌장낭독, 유공 표창, 감사패 전달, 민선 8기 시청 3주년 기념사, 축하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모두가 함께 해 주신 덕분에 공약 이행률 80% 돌파를 비롯해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히는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 설립 등 국립기관 유치, 역대 최대공모사업 선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출산 보육교육 복지시스템 구축 정주환경 개선 등 민선 8기 남원시정 변화를 눈부신 성과로 이룰 수 있었



남원시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3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1일 시청 강당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다"면서 "지난 3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준 시민들과 그 여정에 함께 해 준 1,500여명의 공직자들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더 머물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4년 차에는 제 2중앙경찰학교 유치로 중심으로 경찰수련원 유치와 경찰특성화고 육성 등을 연계

해 경찰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국립기관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정주 여건도 더욱 쇄신해 떠나지 않는 남원, 더 융성하는 남원, 살고 싶은 강소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시는 당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도 개최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 대승한지마을을 한지 체험 프로그램 성황

### 닥나무·한지·미식 연계 체험 국가유산청 특집 행사 호응

완주 대승한지마을(관장 남해경)이 닥나무와 한지, 음식을 연계한 '닥나무 완주맛나라'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과(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2025년 국가유산주간 특집 프로그램' 행사 수행기관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까지 대승한지마을과 위봉사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승한지마을은 충청·전라·제주권역에서 유일하게 2025년 국가유산주간 특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닥나무와 한지, 한식문화를 결합한 창의적인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만 여행자협회 회원,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여행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제 교류의 장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닥나무를 활용한 전통 음식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승한지마을에서는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를 활용한 '닥백숙'을 제공하고, 여름철 맞춤형 부채 만들기 체험, 위봉사에서는 다도와 명상체험, 한지를 활용한 꽃그림 그리기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남해경 대승한지마을 관장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대승한지마을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승한지마을은 2010년 조성돼, 1980년대까지 명성을 누리던 완주 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한지 생산, 전시, 체험, 한옥 스테이 등을 운영하며 전통문화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올해 첫 온열질환자 발생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남원시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함에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 집중 관리 체계 가동을 강화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30일 열경련으로 온열환자 신고가 접수됐다. 환자는 40대로 29일 오전 타 지역을 방문해 고온에 노출됐으며, 귀가 중 허리와 다리 등의 경련 증상이 발생해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 후 퇴원했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폭염 대비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7,000여명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문인력 50명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대상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및 폭염대비 물품(쿨토시) 지원, 만성질환자 복약관리, 폭염대비 건강수칙 홍보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 촘촘한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한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에 대표적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그늘),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 민선8기 군정 3년 '삶의 질 변화 이끌어'

## 공약 최우수·복지 확대 성과 청년·농민·어르신 지원 '눈길'

순창군은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정 전 직원이 함께한 청원조화와 더불어 언론인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군정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원조화에서 직접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군정 운영 방향을 공직자들과 공

유했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 3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하며, 군정 추진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아울러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어르신 이미용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복지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주 인구 3만 회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주거 정책,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이어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군정 성과를 직접 브리핑하고 군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오후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과 육전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임소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군의 복지 철학과 나눔의 진심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최영일 군수는 "남은 1년 동안도 흔들림 없이 군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의 한옥호텔 명지각이 지난달 30일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남원시>

## 남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한옥호텔 '명지각' 개관

### 1956년 건립 전통가옥 리뉴얼 민간한옥 증축 전통·현대 융합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 특색과 친환경적인 한옥호텔인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명지각"」이 지난달 30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최경식 시장, 김한수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들과 남원시관광협의회 위원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인사말 및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이뤄졌다.

명지각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공모에 선정 및 국비지원(39억)을 시작으로 금동과 쌍교동 부지에 총 사업비 94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870㎡, 지상1층, 12동 11객실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은 △1층 12동, 11객실(2인실 6실, 4인실 5실)로 갖췄다. 실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자연 친화 환경을 제공한다.

1956년 지어진 전통가옥을 리노베이션한 본관과, 민간한옥을 증축한 동관으로 구성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결합한 남원시의 특색을 살렸다.

/남원=정하복 기자

## 옥천장학회, (주)국풍교육과 문해력 교육 MOU

### 국어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과 옥천인재숙 입사생 맞춤 교육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재)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와 국어교육 전문기업 (주)국풍교육(대표 최용운)이 중·고등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국풍교육은 '국풍 나르샤', '기파랑', '국풍교육' 등 교육 콘텐츠를 보유

하고 있는 국어 전문 기업으로, 이번 협약은 국어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옥천인재숙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풍교육의 전문 콘텐츠와 교재를 활용한 맞춤형 국어 수업, 전국 단위 모의고사, 시기별 특강 교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의의회, 개원 3주년 기자회견 개최

### 완주·전주 통합 반대 강력 천명

완주군의의회(의장 유익식)는 1일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군민의 동의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익식 의장은 지난 3년간 완주군이 보여준 변화와 성과로 △4년 연속

세입 1조 원 달성 △10만 인구 기반의 로컬푸드 1번지 △귀농귀촌 전국 1위 지역 정착 △글로벌 수소경제도시 기반 구축 △자연·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강화 등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유 의장은 특히 지난 6월 25일, 완주군의의회 전원 삭발 결의에 대해 "군민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회의 뜻을 실현하지"라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이성호 신임 남원부시장 “시정 새 동력”

## 소통미래산업중심 시장강조 “민선8기 후반 핵심 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의 1일자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성호(68년생) 부시장은 완주가 고향이며, 한국교원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전주 완산고등학교를 나왔다.

이 부시장은 1994년 공직을 시작으로



이성호 부시장

다양한 보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 부시장은 취임 첫날 남원 소통혁신의 날에서 "민선8기 후반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따뜻한 복지, 미래성장동력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남원시의 도약 역할을 수행하며, 남원시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5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조광희 제32대 부군수 취임

## 30년 행정경험 기반 전문성 기업유치·청년정책 역량

조광희 제32대 순창군 부군수 취임식이 지난달 3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국·실·과·원·소장,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정책 등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신임 부군수는 1972년 장수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아왔다.

2019년 일자리경제국 경제정책팀



장,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정책팀장을 역임하며 청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국 트랜스관광팀장(2016~2017년), 새만금지원단 새만금개발과(2015년), 국무총리실 과전(2014년) 등을 거치며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22년 혁신성장산업국 주력

산업과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정책 전문성을 키웠다. 2023년에는 국방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과장을 맡았다.

최영일 군수는 "조광희 신임 부군수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이 순창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오토바이센터 안성환 씨, 자원봉사 기어 공로 표창 수상

남원시 금지면 안성환 씨는 1일 1가구 소통 행정 및 우수시책 발굴운영과 연계하여 재능 기부 또는 자원봉사에 기여한 공로로 1일 남원 시에서 주관한 “읍·면·동장 소통행정 유공 시민 표창”을 수상했다.

안성환 씨는 금지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와 “동그라미 안전 점검”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했다.

수상자 안성환 씨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익산시 열린 4-H 체육대회, 청년농업인 화합의 장

### 영농 의욕 고취

전북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익산에 모여 화합과 교류로 하나 되는 뜻깊은 체육대회를 펼쳤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4-H연합회 한마을 체육대회’가 원광대학교 원체육관 등에서 진행되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14개 시군 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 150여 명이 참여한다.

체육대회는 4-H 이념인 ‘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 4개 팀으로 나눠 배드민

턴, 족구, 계주 등 8개 종목에서 예선과 결승이 진행된다.

이강훈 전북특별자치도4-H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더 큰 화합과 성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함께 노력해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제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익산에서 전북4-H 체육대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완주시니어클럽, 계곡산·아쿠아리움 문화체험

완주시니어클럽(관장 김대권)이 지난달 30일, 노인역량활용사업단 참여자 400여 명과 함께 대전 계곡산 및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문화활동 출발 전 완주시니어클럽을 직접 방문해, 참여 어르신들에게 격려사를 전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에 늘 감사드리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LX공간정보연구원 48번째 창사기념일 맞아 ‘헌혈활동’

### 연구원·임직원 50여 명 참여

LX공간정보연구원은 창사기념일 맞아 1일 ‘LX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LX의 48번째 창사기념일에 실시된 이날 헌혈활동에는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비롯해 LX본사 정보전략실, LX고객센터 등 연구원 사옥에서 근무하는 LX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제공한 헌혈 버스에 올라 직접 헌혈하거나 그간 모아 온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한마을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곽희도 원장은 “공사 창사기념일에 실시한 의미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NH농협 군산시지부, 저소득층 위한 백미 200포 기탁

NH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이 1일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백미 10kg 200포를 군산시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원천연 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것은 농협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장코푸드시스템 문요환 대표, 부안군에 성금 전달

부안군은 지역 제빵 제조를 주도하는 (유)장코푸드시스템·(유)피오레 문요환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군청 직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제도를 직접 설명하는 ‘1기업 1과장 책임제’ 성과로, 문 대표와의 공감각이 이뤄낸 결과다.

문 대표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기업이 되기 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이번 기부 취지를 밝혔다.

문 대표는 과거에도 부안 군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등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섰으며, 지역 축제 지원과 지난 경북 산발에도 빵 나눔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부안=신성수 기자



###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 영농폐기물 4톤 수거

정읍의 여성농업인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깨끗한 농촌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회장 안경순)는 지난달 30일 정읍시 제2청사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분리 배

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16개 읍면동 회원들이 참여해 각 지역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집결지로 운반했다.

수거된 폐기물 총 4톤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 고창군 심원면 주민자치위, 불링인재 김동한 군에 장학금 지원

고창군 심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병경)가 지난 30일 고창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동한 학생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동한군은 불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체능 학생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과 운동에 집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김군의 학업과 운동 장비 구입, 훈련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107세대에 여름나기 키트 전달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희망여름 착!착!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나기 키트’ 107세트를 마련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임직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선풍기, 여름이불, 영양닭죽 등 무더위에 필요한 물품 9종으로 구성된 실속있는 여름나기 키트를 직접 포장해 준비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여름나기 키트는 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김제시 관내 취약계층 107세대에 소중히 전달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 [인사] 새만금개발청 인사

#### ■ 과장급(2025.7.1.)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장 서기관 홍 지 광  
△국무조정실 파견 서기관 이 병 역

# 잠깐만요! 버리기전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내집, 내점포앞에 배출**

**배출 시간 20시~다음날5시**

**검은봉투 배출 금지 투명한봉투에 배출**

**용기안의 내용물 깨끗이비우기**

**부착상품 제거후 타 재질 분리배출**



〈一事一言〉



송미령 장관,李 정부 농정공약 비전 밝혀라

김관춘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와 ‘국민 통합’을 내걸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 핵심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 유능한 인재를 적 재적소에 배치하는 ‘통합의 인사’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인사 철학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당장의 정치적 윤희리를 떠나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태도는 진정한 의미의 국정 운영을 위한 올바른 출발점이다.

하지만, 통합 인사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통합 인사의 정당성은 결국 해당 인물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기조를 제대로 수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평가받기 마련이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농정 방향은 분명하다.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며, 농촌을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되살리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거시적 방향성과 과제를 송 장관이 과연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이미 농민 사회에서는 회의와 불신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의 결정들이 농민들의 이해와 어긋났다는 비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 특

히 양곡관리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보여준 송 장관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비하하듯 표현했던 것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행히 송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사과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농민들과 정치권은 송 장관에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진심 어린 사과다. 단순히 언급 하나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전체 농정 운영에 있어 소외되고 상처 받았던 농민들에 대해 깊은 성찰이 담긴 사과가 필요하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도 주문한 바와 같이 농민단체들과의 신속한 만남과 지속적인 소통이다.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농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통합 인사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는다.

셋째로는 농림부 조직의 쇄신 방안 보고다. 조직은 정책 실행의 주체다.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연 이재명 정부의 농업 공약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존 관료적 태도와 무관심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 법안들은 단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식량주권 강화, 농가소득 안정,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지역 재생 등 일련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구체적 계획과 일정표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단지 국회나 대통령실을 위한 보고가 아니라, 이 나라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책임의 표현이다.

송 장관이 진정 통합 인사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와 같은 정치권과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때로 무책임의 동의어다. 지금 농민들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감정적 사과와 형식적 해명이 아니라, 실제로 바뀐 농정 방향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송 장관의 진심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은 일방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국민 통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 중용한 결정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그 인사가 이전의 정책 오류를 성찰하고 새 정부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행해 나가야만 설득력을 얻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자신이 진정 통합의 가치를 구현할 책임 있는 국무위원인지, 아니면 과거의 인사 잔재에 머무는 인물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장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적극적 행동은 단지 본인의 정치적 안위가 아닌, 수많은 농민의 생존과 국가 농업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지금은 개혁의 시기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기능을 시급히 회복해 정상으로 올려놓고 새로운 도전에 응전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직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머슴이요, 도구’일 뿐이다. 송 장관은 진정 국민 통합 정부의 각료로서, 정책 수용자인 농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 분노한 농민들의 외침이 단지 불만의 목소리로 치부되지 않도록,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성실히 응답할 책무가 있다. 그리하여 농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농정의 길, 국민과 함께 걷는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통합 정부의 이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처신’이 될 것이다.

사설

전북 금융도시 재추진, 실현 의지로 증명하라

전북자치도가 한동안 유보 상태에 놓였던 ‘전북 금융도시 조성’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계기로 본격화됐던 이 구상은, 이후 수년간 실질적 진전 없이 정체돼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정책의 진정성을 두고 의구심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관중 도지사는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설득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요청이라는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된 이 사업이 ‘선거운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전북도정의 대표 공약과 없이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 2019년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으며, 2023년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도 전북은 포함되지 못했다.

더욱이 전북 금융도시 조성의 핵심인 프라가 될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예산과 실효성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금융센터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현실적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외형만 있는 ‘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기업이 입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 전제조건인 금융 생태계 자체가 부재한 것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연락사무소를 둔

국내의 금융기관 16곳 대부분이 최소 인력만 배치하고 주요 기능은 여전히 서울 본사에서 수행 중이다. 이는 지역 금융산업의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나 기관 본사 이전을 유도할 만한 유인책도 부재하다는 방증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 수탁기관 본사를 유치하려면 단순한 건물이나 상징적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세제 혜택, 전문 인력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추진에는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 신호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직접 공약한 바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명분과 동력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선 8기 도정이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단계별 이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희망 고문’이라는 비아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금융도시 조성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수도권 집중 해소, 금융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서울-부산 중심의 양극화된 금융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연금급 중심의 대체투자 시장을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전북의 역할은 충분히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도민들은 이번에도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 이벤트였는지는 이제 전북도와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문화재열전



순평사 금동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1998년 11월 27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66 (순화리)

|                                                                                                                                                                             |                    |                    |                    |
|-----------------------------------------------------------------------------------------------------------------------------------------------------------------------------|--------------------|--------------------|--------------------|
| <div><div><div>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div><div>www.jeonbuktimes.co.kr</div></div><div>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div></div> |                    |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 편집국장 김관춘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
| 중양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 안주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원주지국 010-3672-0308 |
| 팔복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                    |
| 송전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
|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오늘의시

돌멩이 하나 /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 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맣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자고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쯤으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세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9년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1978년 남민전에 가입, 활동하다 197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구속됐다. 이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등을 출간했다. 1994년 광주 5.18 묘역에 안장됐다.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힘이 됩니다

인터넷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 구독 828-9603



##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1주년 결산

# “국정 혼란 속, 도민 안정·민생 회복 의정활동 총력”



### “도민을 정책 중심에 두고 일심전력(一心專力)”

“국가적 혼란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방자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감을 갖고 의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문승우 도의장은 “후반기 도의회 출범이후 12.3내란과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에 따른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중앙정치는 격랑의 연속이었다”며 “단체장은 단체장의 일을,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우리 사회가 굳건히 지탱될 수 있을 것이라 신념아래 본연의 소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12대 후반기 의회는 외적으로는 전북발전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적으로는 의회독립과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자평하며 “남은 1년동안 도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의장은 “도의회 의정활동의 목표는 도민행복과 전북도약이다”라며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시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해결에 나섰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 대안 마련 및 생활밀착형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늘고 있는 자치입법 수요와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광역의원정수 확대는 필요하다”라며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야 지도부 만남을 시작으로 이후 건의안 채택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최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도 있다”라며 “불합리한 ‘지자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을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들과 함께 촉구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법안 정비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한다”라며 “우리 전북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 전북으로 도약하는데 저와 우리 도의회가 디딤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 의원정수 확대에 적극 대응…필요 공감대 확산 생활밀착형 자치입법 등으로 문제 해결 앞장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도의회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정 위기 가운데 도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도의회 역할 및 위상 확립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공론화하고, 앞장섰으며, 기후위기 대응, 농촌 고령화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도민들의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주력했다.

이와 함께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전북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했다.

도의회의 지난 1년 활동과 성과를 삼일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권요안·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이재·오현숙·장영국·전용태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썼다. 특히,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한빛원전 대책,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등 6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도의회가 전북 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의정 역량 강화는 물론 의원과 직원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아울러 도의원 정수 확대, 새만금SOC 사업 추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주했으며, 의회사무처의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강태창·김명지·염영선 이수진·정종복·한정수 의원)는 인구 유출과 저성장 지속화로 전북경제 위기가 심각함에 따라 계층별 지원책이 세밀하게 추진되도록 전북자치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도민

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의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전북의 신규 저출생 대책은 ‘사회적 격차,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간과했음을 지적하며, 출생 기본 수당 도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에 맞춤형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 전북형 정책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전북의 국가 수출 1%대 등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 내실을 다지고 재정 자립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특례와 잇따른 고위공직자 비위행위에 따른 개선 마련 등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국주영은·김정수·오은미·오현숙·이정린·황영석 의원)는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화 사회 지역 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화력발전소 중단,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등 지역민 보호를 위한 각종 환경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정부를 상대로 한 농업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제정과 기후재난에 따른 벼벌구 피해 대책 마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례제한 폐지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도 상품성이 부족한 농산물의 판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친환경 현수막 이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관련 조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도했다. 이외에도 전북자치도 산업체 RE100 대응책 마련, 전북 양봉산업 대책 촉구 등 농업, 복지, 환경 전반 현안에 대한 돌고구 마련에 집중했다.

####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김만기·김이재·나인권·서난이·이병도·임종명 의원)는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 대



응하고자 긴급 간담회와 상황 점검 및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 의정 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도 주력했다. 지난 연말, 고환율 및 탄핵발 경제 혼란이 가중될 때에는 ‘전북 민생경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도민 체감형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적극 나섰다.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5개 단체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별간담회’를 열어 지역 건설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 청문회를 통한 공공기관장의 자질과 책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에 의정 역량을 쏟았다.

위원회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조례’,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문화자치 조례’, ‘일·휴양연계 관광산업 육성 조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전북 도립국립원과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문화기관의 특혜 및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칼링 전용경기장 등 체육시설 건립의 타당성, 412억 원 규모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검증 부실, 지역축제의 예산 낭비 및 1회성 운영 등 문화·체육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회관 건립현장과 하안 양육집(舊 도지사관사)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2036 전주세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심의 등 올림픽 유치 절차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문화 자치 실현,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도 집행부에 적극 주문했다.

####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강동화·박정희·윤수봉·윤영숙·윤정훈·이병철 의원)는 학생들이 인구감소, 기후 위기 및 인공지능(AI) 발달 등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의식 함양,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다른 지역 학생들이 도내 농어촌 지역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와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 조성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 또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외에도 지역 여러 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교 현장 및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으며, 도교육청 학생 수련원 등을 찾아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준호 기자